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희생과 섬김으로
‘한국 모델 로펌’
꿈꾼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4



(주)리걸타임즈

표지인물 법무법인 광장 김재훈 대표변호사
법조인 100명 배출...연세 로스쿨의 발전전략
엔터테인먼트 전문 임상혁 변호사의 변론전략



SC은행 거쳐
지평으로 돌아온
심희정 변호사

“고객 눈높이에
맞춰 의견서 써야”

“로펌은
온실 같은 곳
명확한 답 주고
쉬운 표현, 용어 써야”

“리더 프렌드리(reader friendly) 즉,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의견서를 쓰라고 후배들에게 주문하죠.”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금융파트에서 의뢰인들을 만나고 있는 심희정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로펌의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법무팀장으로 활약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6년 전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 김앤장으로 옮겨 7년간 더 경력을 쌓은 후 SC은행을 거쳐 다시 지평의 변호사가 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제일 덕목은 고객제일주의

SC은행에서 5년간 로펌의 의견서를 받아 본 심 변호사가 다시 로펌으로 돌아와 강조하는 로펌 변호사의 제일 덕목은 고객제일주의.

그녀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의견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명확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하죠. 결론을 모호하게 내면 곤란해요. 법학 교과서처럼 갑(甲)설, 을(乙)설 소개하고 고객에게 고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심 변호사는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내 결론을 먼저 내주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법률 문장의 속성상 이중, 삼중 부정 등 장황한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된다’ ‘안 된다’ 식으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의견서가 더욱 고객의 만족을 살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나 더 그녀가 지평에서 의견서를 쓸 때마다 신경 쓰는 대목 중 하나는 가급적 쉬운 표현, 용어를 쓰자는 것. 그녀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의 일반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C은행에서 5년 근무

SC은행에서의 5년 근무를 포함 변호사가 된 지 16년

“법학교과서처럼 갑설, 을설 소개하고 고객에게 고르라는 식으로 하면 곤란 결론 미리 낸 후 설명하는 것도 방법”

이 흐른 그녀에게선 중견 변호사의 성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심 변호사는 “일반 기업과 비교하면 로펌은 오히려 온실과 같은 곳”이라며, “SC은행에서 근무하며 법률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홍보 등 은행 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접한 것이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

금융 · 증권 분야가 전문분야인 심 변호사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세종에 입사해 수많은 거래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다. 당시 사법시험 차석 합격, 사법연수원 차석 수료의 심 변호사가 로펌에 입사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어 김앤장으로 옮겨 국내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자산운용, 금융규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한 그녀는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로펌 변호사 일을 접고, SC은행의 사내변호사가 되었

심희정 변호사는 누구...

- 서울대 법대 졸업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콜럼비아 로스쿨 LL.M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다. 로펌에서 활동하며 사내변호사 일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마침 SC은행에 자리가 생겨 결단을 내렸다는 게 심 변호사의 설명.

“일 복이 참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SC은행으로 옮기자마자 리먼 사태가 터져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베어스틴스 등 유명 투자은행들이 넘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SC에서도 키코 분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적지 않아 바쁘게 뛰어다녔으니까요.”



키코 분쟁 등 대처

김앤장 시절 콜럼비아 로스쿨로 연수를 떠나 LL.M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춘 심 변호사는 2012년 SC은행을 나와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이번엔 초

등학교생인 두 자녀에 대한 봉사와 교육이 주된 목적. UCLA 로스쿨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등록하고 리먼 사태 이후 세계 금융의 변화에 특히 관심을 갖고 여러 대목을 추적해 보았다는 심 변호사는 1년의 재충전을 마치고 지평의 변호사가 되어 다시 로펌으로 돌아왔다.

지평은 세종 출신의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로펌으로, 심 변호사가 세종에 근무할 때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도 적지 않다. 특히 지평의 매니징파트너인 양영태 변호사는 16년 전 세종의 리쿠르트 팀장을 맡아 심 변호사를 직접 스카우트한 주인공으로, 지평에서 대표 변호사와 파트너의 관계로 다시 만났다.

심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도 여럿 있지만, 동남아 지역에 현지사무소를 열어 적극 진출하는 등 지평의 진취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함께 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금융 · 증권을 비롯한 M&A, 기업일반, 국제거래 등

“규제 필요하지만 시장과 조화 이뤄야
일시적 사정 따라 자주 바뀌어도 곤란”

의 분야에서 폭넓게 업무를 수행하는 심 변호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금융규제 분야. 금융은 어느 나라나 규제와 감독이 많은 업종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사내변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금융의 이런 속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금융규제 분야 관심

“금융의 속성상 규제 또는 감독이 필요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규제도 시장과 조화를 이뤄야 하겠지요. 또 그때그때의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자주 바뀐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규제는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더욱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탈규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요즘 금융 전문 심회정 변호사가 금융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생각하는 확고한 의견이다. ■

김덕성 기자